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부



목 차



I. 수립 배경	1
II. 2030 NDC 이행 현황 및 평가	2
III. 수립방향 및 여건	3
IV. 검토 결과	4
V. 2035 NDC(안)	5
VI. K-GX 추진전략(안)	8
VII. 향후 추진일정	9
(참고1)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10
(참고2) NDC 이행을 위한 부문별 과제(안)	11

I. 수립 배경

- (기후위기) '24년 지구온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사실상 돌파, +2℃인 CO₂ 450ppm까지 6~7년만 남은 급박한 위기 상황(現 430ppm, 年 3ppm↑)

* 5년 이내 세계 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2℃ 상승 가능성 첫 언급(세계기상기구, '25.5)

- (산업위기) 中은 대규모 재생e 보급* 기반 녹색산업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 주도*** → 우리의 녹색투자 지연시 산업경쟁력 하락 우려

* (太) '17175GW → '24887GW(+407%), (風) '17184GW → '24521GW(+183%)

** 녹색산업분야가 중국의 '23년 전체 GDP 성장의 약 40%까지 기여

*** 中 글로벌 시장 점유율: 太80~95%(IEA), 風70%(BNEF), EV59% 및 배터리67%(SNE리서치)

- (국제동향) G20 12개국 등 총 80개국이 2035 NDC를 제출('25.11.9 기준), 주요국들은 단일값 또는 범위 형태의 감축목표 제시

* [단일값] (英)'90년 比 △81% (獨)'90년 比 △77% (日)'13년 比 △60% [범위] (EU)'90년 比 △66.25 ~ 72.5% (美)'05년 比 △61 ~ 66% (濠)'05년 比 △62~70% (加)'05년 比 △45 ~ 50%

- (국내상황) 한국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 성장전략 차원의 NDC 설정과 녹색산업 육성전략으로 탈탄소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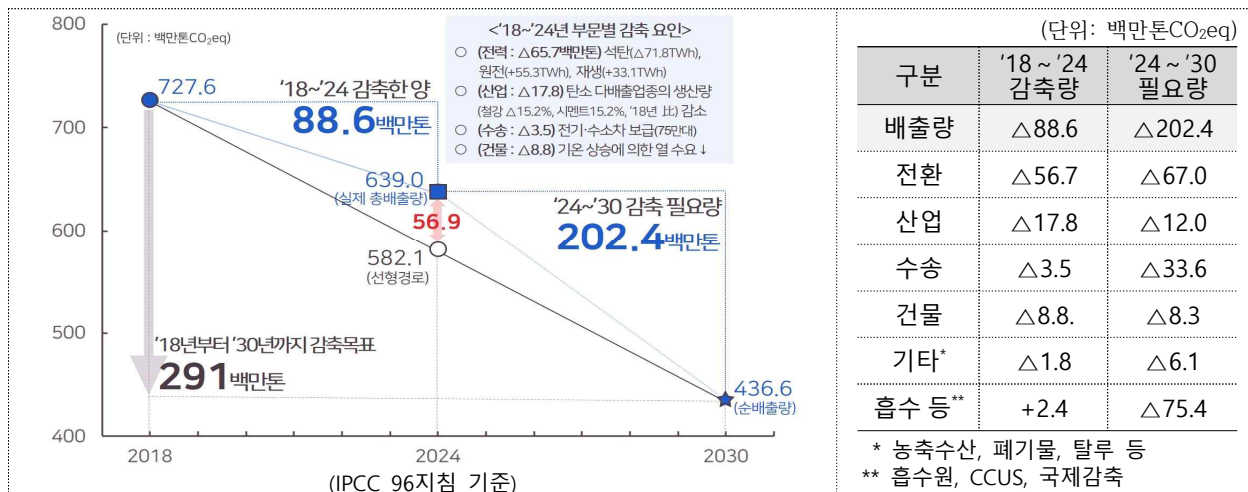
* 향후 5년간 1.8% 수준(KDI, '25)

- 책임감 있는 NDC 목표로 분명한 시장신호 전달, 태양광·풍력·전력망·ESS·전기차·히트펌프·그린철강·CCUS·저전력 반도체 등 기업의 녹색 산업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연관 산업 발전·고도화 확산
- ❶K-GX(Green Transformation)와 ❷K-AX(AI Transformation)를 성장의 양대축으로 삼아 에너지·산업구조 大 개조 추진

* [국정과제] ❶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❷AI 3대 강국 도약

II. 2030 이행 현황 및 평가

- **(현황)** '18년 → '30년까지 291백만톤을 감축(12년간 △40%)해야 하나, '24년까지 89백만톤 감축(6년간 △12%)에 불과, 향후 202백만톤 감축 필요
- 2030 NDC(△40%)를 원전 비중 확대, 재생e 비중 축소, 산업 목표 하향* 등 조정('23.4)하며 산업부문 감축 유인 약화
- * 산업부문 경감분(8백만톤)을 전력부문(4백만톤)과 국제감축(4백만톤)에 전가
- ⇒ 향후 6년간 감축부담 증가, 2030 NDC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추진



- **(달성방안)** 재생e 확대, 배출권거래제 시장기능을 통한 산업부문 감축 유인, 전기·수소차 보급 가속화, 열 생산의 전기화를 통한 탄소 감축 추진
- (전력) 재생e 보급 확대(78 → 100GW) 및 석탄발전 등 감축
- (산업) 철강·석유화학 등 다 배출산업의 고부가 전환,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강화 등
- (수송) 전기차 신차 비중 1/3도달 시점까지 지원을 다각화(보조금, 전환지원금, 금융, 인센티브 등)하여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
- (건물) 녹색건축(제로에너지빌딩,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열 생산의 전기화를 위한 히트펌프 도입
- (흡수원)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신규 조림 등으로 흡수량 증가
- ⇒ 전력·산업·흡수원 부문의 추가 감축·흡수를 통해 CCUS·농축수산·폐기물 등 난감축 부문 보완, 총괄목표(△40%) 달성

Ⅲ. 수립방향 및 여건

- (기본원칙) 에너지·산업 대전환 유도를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 ①IPCC 권고, ②현재 결정('24.8),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 고려 감축 목표를 설정, 이와 연계 녹색산업 대전환을 위한 K-GX 전략 수립

- ① (IPCC 권고) 1.5°C 이하 억제를 위해 전 지구적 감축 수준 제안('19년 比 △60%)
② (현재 결정) 미래세대 부담 이전 방지, 쏠자구적 감축 기여 과학적·국제적 근거 기반 목표 수립

- (산정방식) 2030 NDC('21.12)는 舊통계지침('96 IPCC) 적용 및 [총-순] 방식(기준연도('18)는 총배출량, 목표연도('30)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규정

⇒ 2035 NDC는 新 통계지침('06 IPCC) 및 [순-순] 방식(기준통일) 수립

【 감축목표 산정방식 변화 】

2030 NDC		舊 통계기준('96 IPCC)		⇒	2035 NDC		新 통계기준('06 IPCC)		
기준연도('18)	총배출량	727.6	감축률 △40%		기준연도('18)	총배출량	783.9	감축률 △■%	
목표연도('30)	순배출량	436.6			목표연도('35)	순배출량	□ □ □		

- (의견수렴) 2035 NDC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감축 방안 및 목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대국민 토론회* 및 공청회 추진

* 기후부장관 주재로 대국민 토론회(총괄, 전력, 산업, 수송, 건물, 기타 등) 6회 개최 및 탄녹위 주최 미래세대 간담회, 대한상의·국회 주관 토론회, 지자체 탄녹위 설명회 등 논의

- (대국민 토론회) 산업계, 시민사회, 국제사회 등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4가지 안*에 대한 대국민 토론회 추진

* △48%: 산업계 요구 반영, △53%: 선형경로, △61%: IPCC 권고, △65%: 시민사회 제안

- (공청회) 책임감과 실현 가능성, 산업계 영향,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
(1안) △50~60% 안, (2안) △53~60% 안의 2가지 안에 대한 의견수렴(11.6)

⇒ 산업계는 50%도 부담호소, 정부지원 확대 요청,
시민사회와 미래세대 등은 61% 이상 감축 촉구

IV. 검토 결과

- **(목표수준)**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 범위방식*(2030 NDC는 단일값)으로 감축목표를 수립

* (하한)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목표로 설정

(상한) 정부지원 대폭 확대, 혁신적 기술개발, 산업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설정

- 하한의 감축목표는 현재 결정 취지, 이행규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형수준 감축 필요
- 상한의 감축목표는 미래세대 감축부담 완화, IPCC 권고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필요

⇒ 현재 결정, 미래세대 요구, 산업계 부담,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고려
△53~△61% 목표 수립 추진

- **(정책제언)** 재생e 확대, 탈탄소 산업 전환, 무탄소 모빌리티 확산, 열 공급의 전기화 등 NDC 이행을 위한 부문별 감축방안 마련 필요

【 부문별 정책 제언 】

- ◆ **(전력)** 재생e 전향적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격거리 완화 등), 주민수용성 제고, ESS·분산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도입 등을 통한 유연성 확보 필요
- ◆ **(산업)** 시민사회는 탈탄소·친환경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 필요성 제기, 산업계는 혁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해외 사례를 참조한 전폭적인 지원 요청
- ◆ **(수송)**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 제도(의무판매비율, CO₂ 배출기준) - 시장(세제 지원, 중고시장 등) - 인프라(충전, 수소 인프라 등)를 아우르는 삼각축 병행 필요
- ◆ **(건물)** 화석연료 냉난방에 대한 전기화 전환 촉진, 독일, 영국 등 사례를 참고하여 신축 건물 중심으로 대대적인 히트펌프 보급 필요
- ◆ **(흡수원)** 1인 1그루 나무심기, 목조건축 등 목재 활용을 통한 산림 순환성 개선, 바이오차·블루카본 등 산림 외 흡수원 적극 발굴
- ◆ **(농축산·폐기물)** 영농형 태양광 확충, 재생e 기반 친환경 농업 등 신규 감축 수단 적극 발굴, AI 폐기물 선별 및 태양광 패널 재활용 등 신산업 육성 필요
- ◆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사회 전환으로 인한 석탄발전소, 도시가스 산업, 내연차 부품업계·정비업계 노동자 및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필요

V. 2035 NDC(안)

□ (감축목표) '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₂eq) 대비 △53~61%

→ '35년 순배출량 목표 : 348.9~289.5백만톤CO₂eq

○ (△53%) 기준연도('18년)~탄소중립('50년)까지의 선형 경로

○ (△61%)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 완화 고려 경로

<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단위: 백만톤CO₂eq, 괄호안 값은 '18년 대비 감축률)

구분	부문	'18년	'24년	2035 NDC			
				△53%		△61%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배출량 ('18比 감축률)	감축량 ('24比)
순배출량		742.3	651.4	348.9	△302.5	289.5	△361.9
배출	전력	283.0	218.3	88.3 (△68.8%)	△130.0	70.0 (△75.3%)	△148.3
	산업	276.3	250.9	209.1 (△24.3%)	△41.8	190.6 (△31.0%)	△60.3
	건물	52.1	43.6	24.2 (△53.6%)	△19.4	22.8 (△56.2%)	△20.8
	수송	98.8	97.5	39.3 (△60.2%)	△58.2	36.8 (△62.8%)	△60.7
	냉매	23.1	35.0	27.4 (+18.6%)	△7.6	25.5 (+10.4%)	△9.5
	농축수산	27.6	25.6	20.0 (△27.5%)	△5.6	19.5 (△29.3%)	△6.1
	폐기물	19.4	17.5	9.2 (△52.6%)	△8.3	9.0 (△53.6%)	△8.5
	탈루	3.7	3.2	2.6 (△29.7%)	△0.6	2.4 (△35.1%)	△0.8
	수소	0	0	8.1	+8.1	6.5	+6.5
흡수 및 제거	흡수원	-41.6	-40.2	-38.3	+1.9	-39.3	+0.9
	CCUS	0	0	-11.2	△11.2	-20.3	△20.3
	국제감축	0	0	-29.8	△29.8	-34.0	△34.0

□ 부문별 감축방안

① 전력 ('18년) **283.0** → (△53%) **88.3** ~ (△61%) **70.0**백만톤
↳ △68.8% 감축 ↳ △75.3% 감축

- (감축 수단) 재생e 보급 확대 및 화석연료(석탄, LNG) 감축
- (추가 감축) 분산형 전력망 체계 구축을 통해 재생e 추가 보급

② 산업 ('18년) **276.3** → (△53%) **209.1** ~ (△61%) **190.6**백만톤
↳ △24.3% 감축 ↳ △31.0% 감축

- (감축 수단) 저탄소 연·원료 전환, 공정 효율화, 순환자원(고철, 폐플라스틱 등)활용을 통한 감축
- (추가 감축) 저탄소제품 생산 확대, 철스크랩 사용 비율 확대, 부생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등 감축수단 강화 등

③ 건물 ('18년) **52.1** → (△53%) **24.2** ~ (△61%) **22.8**백만톤
↳ △53.6% 감축 ↳ △56.2% 감축

- (감축 수단)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리모델링 등 건물 e 성능 강화, 열e의 전기화(히트펌프 보급 등), 건물 배출관리 및 지원
- (추가 감축) 열e의 전기화 확대

④ 수송 ('18년) **98.8** → (△53%) **39.3** ~ (△61%) **36.8**백만톤
↳ △60.2% 감축 ↳ △62.8% 감축

- (감축 수단)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내연차 연비개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연차 주행거리 감축 등
- (추가 감축) 내연차 연비개선을 상향,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

⑤ 냉매 ('18년) **23.1** → (△53%) **27.4** ~ (△61%) **25.5**백만톤
↳ 18.6% 증가 ↳ 10.4% 증가

- (감축 수단) 신규 제품 高 GWP 사용제한 및 低 GWP물질 전환, 제품 사용 단계 누출 관리 강화, 회수 및 재활용 체계 구축 등
- (추가 감축) 누출·회수관리 강화 및 자연냉매 활용 등

⑥ 농축수산 ('18년)27.6 → (△53%)20.0 ~ (△61%)19.5백만톤
 ↳ △27.5% 감축 ↳ △29.3% 감축

- (감축 수단) 논물·농경지 관리, 바이오가스·고체연료화 등 가축 분뇨 처리 개선, 저탄소 사료 보급, 고효율·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등
- (추가 감축) 바이오가스화·고체연료화 시설 확충

⑦ 폐기물 ('18년)19.4 → (△53%)9.2 ~ (△61%)9.0백만톤
 ↳ △52.6% 감축 ↳ △53.6% 감축

- (감축 수단) 폐기물 발생 최소화, 바이오플라스틱 대체, 매립지 발생 메탄가스 회수 및 에너지원 활용 등
- (추가 감축)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확대 등

⑧ 수소 ('18년)0 → (△53%)8.1 ~ (△61%)6.5백만톤

- (수소 생산) 수소 공급을 위한 그린수소, 핑크수소, 블루수소 등 생산
- (생산 전환) 그린수소로 전환 확대

⑨ 흡수원 ('18년)-41.6 → (△53%)-38.3 ~ (△61%)-39.3백만톤

- (감축 수단) 산림순환경영, 신규 흡수원 확충,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습지·해양 흡수원 확충 등
- (추가 감축) 국산 목재이용 확대 등

⑩ CCUS ('18년)0 → (△53%)-11.2 ~ (△61%)-20.3백만톤

- (감축 수단) CCS국내저장소(동해가스전 등), 해외 프로젝트, CCU상용화 제품 후보군, 정부 추진 R&D·전략 등
- (추가 감축) CCS국내·외 저장소 확대, CCU상용화 제품 확대 등

⑪ 국제감축 ('18년)0 → (△53%)-29.8 ~ (△61%)-34.0백만톤

- (감축 수단) 대규모 G2G 협력사업 추진(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내 기업의 국제감축 실적 활용

VI. K-GX 추진전략(안)

- (정책비전) 녹색산업 전환을 통해 산업·경제 구조를 전면 혁신하여 신산업 육성 및 우리 경제를 성장지향형으로 대개조
 -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을 선도하는 국가로 탈바꿈

< K-GX 비전 및 부분별 추진과제, 지원체계(안) >

비전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녹색 문명 선도국가로 탈바꿈			
목표	K-GX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			
전력	산업	수송	건물	기타
재생e 30년 100GW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tandem 셀 상용화 풍력 풍력 대형화 기술 조기 확보 그리드 분산형 전환 및 ESS, HMDX 산업 육성	혁신 기술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원료 전환 CCUS 연계 저탄소 전환 청정 전력 RE100 산단 확대 수요 창출 리팩토링, 공공조달 확대	전기 수소차 획기적 보급 및 내연차 전환 연관 산업 2차전지 배터리 산업 육성 대형차 대형차의 수소차 전환 비도로 농기계, 건설기계 등 전환	열e 전기화 히트펌프 보급 가속화 단열 그린 리모델링 확산 외장 건물일체형 태양광 확산 ZEB 제로에너지빌딩 확산	농축수산 에너지화 시설 확대 흡수원 전국민 1인 1나무 심기 CCUS 실증 및 조기 상용화 국제 감축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
목적지향형 재정 혁신	성장지향형 세제 개편	혁신성장을 위한 신시장 창출	GX 산업 생태계 조성	GX 수출 동력화
재원 확대 녹색 금융 전환 금융	생산 세액 공제 투자 세액 공제 화학소재 전환	공공 수요 창출 혁신 성장 지원 혁신 기술 개발	선도 10개 중핵 기업 20개 유니콘 50개	Team Korea 브랜드 전략적 아웃리치 세계 시장 진출

* K-GX, K-AX를 양대 축으로 탄소집약적인 산업 구조를 전면 혁신하고, 성공모델을 창출하여 제조업 업그레йд 및 세계 최고 경쟁력 확보 추진

- (정책방향)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선별, 재정·금융·세제·제도 등 통합지원을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 확보
 - 제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향후 10년간 탈탄소 전환을 통해 녹색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총력 지원
 - * (예) 철강(HyREX 기술) 논문특허 등 글로벌 3위권 → (35) 실증성고를 통해 세계 선도국으로 도약
 - NDC 이행이 신시장 창출 기회가 되도록, 기후테크 혁신기술 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추진체계) 범정부 K-GX 추진단(기후부 주관) 및 각부처 자체 추진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과제 발굴 및 업계 의견수렴 등 추진('25.12.~'26.6)

VII. 향후 추진일정

- ☐ 국무회의 2035 NDC 최종안 심의·확정(11.11)
- ☐ COP(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30 계기 국제사회 발표(11월 3주)
- ☐ 2035 NDC UNFCCC 사무국 제출(12월)
- ☐ K-GX 추진전략 발표('26.上)

참고1

주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G20 12개국**(미국, 영국, 일본, 브라질, 캐나다, 호주, 러시아, 남아공, 인니, 중국, EU, 튀르키예) + UAE,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총 80개국 제출**(‘25.11.9 기준)

구분	기준 연도	배출 정점	2030 NDC	2035 NDC			'18 比 감축률	
				NDC	IPCC*	선형	'30	'35
한국	2018	2018	40%	-	61%	53%	40%	-
영국 (순-순)	1990	1991	68%	81%	77.9%	75%	44.2%	66.9%
일본 (총-순)	2013	2013	46%	60%	67.5%	60%	38.5%	54.4%
독일** (총-순)	1990	1990	65%	77%	74.6%	75%	48.6%	66.2%
중국	-	-	'05년 比 배출 집약도 △65%	배출정점 比 △7 ~ 10%	-	-	-	-
EU (순-순)	1990	1990	55%	66.25~ 72.5%***	71.3%	75%	40%	55.0~ 63.4%
미국 (순-순)	2005	2004	50~ 52%	61~ 66%	65.2%	66.7%	43.6~ 45.8%	56~ 61.6%
호주 (순-순)	2005	2018	43%	62~ 70%	67.8%	66.7%	30.8%	53.8~ 63.6%
캐나다 (총-순)	2005	2007	40~ 45%	45~ 50%	59.8%	66.7%	39.1~ 44.1%	44.1~ 49.2%

* IPCC 권고('19년 比 60% 감축)를 각 나라의 감축목표 산정 기준으로 환산

** 「기후보호법」에 '35년 감축목표는 77%(^{30년}65%~^{40년}88%~^{45년}탄소중립의 선형경로)로 규정('21)

*** 66.25% : '30년 목표(55%)와 '50년 탄소중립 사이의 선형경로 상 감축목표
72.5% : '30년 목표(55%)와 '40년 목표(안)(90%) 사이의 선형경로 상 감축목표

참고2

NDC 이행을 위한 부문별 과제(안)

구분	주요 추진 과제		주관(협조)	비고
전력	재생e 이격거리 규제 완화·폐지 법제화		기후부(행안·국토부)	'25.12
	공공부문 RE100 추진		기후부(기재부)	'25.12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농식품부(기후부)	'26.上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기후부	'26.上
	태양광 입지 다각화 (영농·수상형, 공장지붕, 도로·철도·농수로 등)		기후부 (농식품·국토부 등)	'26~
	육상풍력 신속 인허가		기후부(산림청)	'26~
	해상풍력 계획입지 시행 및 인프라 확충		기후부(해수부)	'26~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식품부·기후부	'26~
	탠덤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후부	~'30
	에너지고속도로 확충 추진		기후부	계속
	차세대 전력망 구축		기후부	'26~
산업	총괄	저탄소제품 생산 인센티브 및 공공의무조달	산업부(기재부)	'26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기후부	'26
		기후테크 전략수립	기후부(관계부처)	'26
		온실가스 다배출기업 탄소감축설비 지원 강화	기후부	'26
	철강	수소환원제철 실증	산업부	'26 ~ '30
		상저취전로 기술개발 및 실증	산업부	~'28
		함수소가스 취입 기술개발 및 실증	산업부	~'30
	석유 화학	전기 NCC 원천기술 개발	산업부	~'28
		부생가스 고부가전환 원천기술 개발	산업부	~'29
	시멘트	혼합시멘트 관련 KS 개정 검토	국토부·산업부	'26 ~ '30
		저온소성 공정로 실증	산업부	~'29
	정유	차세대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	산업부	~'32
	반디	저GWP 공정가스 기술개발 및 실증	산업부	~'35
건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법 개정		국토부	'26.6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국토부(기재부)	'27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급 강화(공공 3등급)		국토부	'30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 수립		기후부	'25.12
	히트펌프에 대한 합리적 요금제 마련		기후부	'26
	소형 히트펌프 고효율설비 인증기준 마련		기후부	'26
	공공기관(일정규모 이상) 히트펌프 설치의무화 시행		기후부	'28

구분	주요 추진 과제	주관(협조)	비고
수송	수송 부문 모빌리티* 전동화 로드맵 수립 * (도로) 승용·승합·화물·이륜차, (비도로) 건설기계·농업기계·선박	기후부	'25.12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기후부	'25.12
	저공해·무공해차 보급 목표 개편	기후부	'26.上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융자·펀드) 강화방안 추진	기후부	'26.1
	K패스·BRT 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국토부	계속
	수소 등 친환경 철도중심 교통체계 강화	국토부	'27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화 제도 확대	국토·산업부 (기후부)	'30
농축수산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방안 마련	농식품부(기후부)	'25.12
	저탄소 농업활동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농식품부	'27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확대	농식품부	계속
폐기물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기후부	'25.12
	재생원료 사용의무 강화('26 10% → '30 30%)	기후부	'26 ~ '30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확대	기후부	'26.1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도입	기후부	'27.下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R&D) 추진	기후부	'27 ~ '33
냉매	냉매관리법 제정	기후부(산업부)	'26
	低GWP 물질 및 핵심부품 R&D	기후부	'26 ~ '29
수소	그린수소 실증사업(제주, 50MW) 예타 추진	기후부(기재부)	'26.上
	대용량 수전해시스템 개발 및 실증	기후부	'25 ~ '29
흡수원	신규흡수원 확충을 위한 규제개선·부지확보	산림청(전부처)	'26.상
	목조건축법, 임도설치법 제정	산림청(국토부)	'26.하
	산림공익가치보전 지불제 도입	산림청	'27
CCUS	CCU 제품인증, 전문기업 확인 등 산업인증제도 구축	과기부(기후·기재·국토부)	'26.上
	CCU 기술 부문별 대규모 실증사업 기획 추진	과기부(기후·기재·국토부)	'26 ~ '28
	CCS CO ₂ 수송·저장을 위한 CO ₂ 액화·정제·적하역 R&D	기후부(기재부)	'26 ~ '29
	CCUS CO ₂ 포집·액화 등 기술보급 위한 진흥센터 구축		'27
국제감축	대규모 G2G 협력사업 중심으로 확대 추진	관계부처	'26
	파리협정 6.4조 실적 → ETS 상쇄배출권 전환	기후부	'26